박원자의 母情佛心 22 조계종 前 포교원장 지원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조계종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열다섯 어린 나이에 모친과 사별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른을 보시고 육남매를 키웠다. 그 과정은 수행이며 기도였다.

"내게 어머니는 관음보살의 아바타"



그림 · 박구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지원 스님(육지장사 회주)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듬는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이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십여 년의 세월은 따뜻하고 그리운 시간으로 남아 있다. 한국 전쟁 직후 의 춥고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어주었던 어머니.

일흔이 훌쩍 넘은 지금도 어머니의 품속에서 느꼈던 그 촉촉하게 따뜻했던 어머니의 냄새를 잊을 수 없다.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며 나태함을 극복했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스님을 법문을 듣고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삶 자체가 수도승과 같은 구도의 길이었다. 스님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비롯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원 스님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 일 많고 바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절에 가셨다. 절에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 육남매를 불러 모아 쌀의 뉘를 함께 골라냈다. 반 토막이 난 쌀이나 벌레 먹은 쌀을 정성껏 골라내 부처님에 올릴 공양미를 준비했다. 절에 갈 때만 입는 흰 한복을 손질하고 찬물에 목욕재계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였다. 십 리도 훨씬 넘는 먼 길을 가면서도 머리에 인 공양미를 땅에 내려놓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6살 때쯤 어머니를 따라가 보았던 환히 빛나던 부처님 모습과 깨끗한 법당이 생생히 지금도 떠오른다.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듯 쌀을 올려놓고 정성스레 절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 행위 자체가 육바라밀의 실천이었다. 한 해에 서너 번은 절에 따라가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고 법당의 부처님 모습이 밝게 다가왔던 것이 불심의 시초였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속 아프게 했던 사건이 먼저 떠오른다. 월사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날, 어머니에게 생떼를 부렸던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월사금을 달라며 쫓아다니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육남매를 키우며 모두 학교에 보내야했으니 오죽하면 달라는 돈을 못주었을까.

"나중에 줄 테니 오늘은 그냥 가거라."

"나중에 언제, 지금 줘."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따라가 보챘다. 그러는 아들을 보며 야단치지 않은 어머니였다. 그저 눈을 탁,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층층시하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 모두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큰소리 안내시고 눈을 감아버리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일하러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 떼를 부렸던 것이 일생 가슴 아프게 남아있어요. 세상 살면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죠."

시부모님, 남편을 수발하고 육남매를 키우며 농사짓고 길쌈하고, 옷감을 끊어다가 아이들 옷까지 해 입혔던 어머니는 일류디자이너였다. 자식들의 소변을 찍어 먹어보고 대변의 색깔로 자식이 어떤 병인지 알아내고 약초를 캐어나가 달여 먹였던 유능한 의사였다. 만능이었고 철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몸이 어느 때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어린 눈에도 젊은 어머니가 어딘가 아파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동무들과 놀다가 싸움박질을 하던 와중에 친구 하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어린 시절 흔한 일인데 철이 난 이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상심하실 게 걱정이었다. 친구의 손을 잡고 혼을 내러온 친구의 어머니에게 길에 서서 용서를 빌었다.

"저희 엄마께서 병중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저를 야단치시려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철이 난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없이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였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풍성하게 음식을 해서 이웃과 나눠먹고 탁발하러 온 스님들에게 넉넉하게 쌀을 부어주시던 어머니였다. 자식보다 친구들을 더 칭찬하며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가를 가르치셨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주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스님 세 분이 나타나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더라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어머니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 나이 고작 마흔 즈음이었다.

열다섯 어린 나이에 모친 사별
10년 어머니와의 추억 되짚으니
어머니는 수행자였고 보살이셨다
그리움에 사무쳐 지은 사모곡은
'큰사랑'이라는 대중가요로 인기
"어머니,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때 열다섯 소년이었던 아들은 출가해 수행자가 되었고 어머니 나이쯤 되었을 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한 편의 시로 토해냈다. 돌덩이처럼 가슴 한편에 매달려있던 아득한 그리움, 그 가없는 은혜를 갚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떠나버리신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모곡이었다.

이 세상 지중한 은혜 배서리어 낳으신 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아픔으로/ 큰 목숨 궁굴리어 자식 사랑 낳으신 날/ 그 사랑 바다보다 넓고 더욱 빛나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당신 모습 여위시고/ 한평생 다하도록 사랑으로 이어져서/ 십 년에 다시 십 년 또 몇 곱을 포개어도/ 이 세상 변치 않는 것 당신 사랑뿐입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어머니도 병드시고/ 자식이 서러우면 어머니는 더 서러워/ 그 얼굴 주름살은 골골마다 깊으신가/ 빠꾸기 피울음인양 철을 따라 우옵니다

삼삼히 눈 감으면 잡힐 듯이 어린 시절/ 어머니 하얀 머리 올올 마다 실려 오고/ 절로는 내 가슴에 눈물로만 번져 와서/ 생각은 노을이 되어 서녘하늘 덮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아쉬움이 담긴 이 시는 '큰 사랑' 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중가요로 만들어졌다. 15~16년 전, 유명 작곡가 남국인이 곡을 만들고 가수 진송남 부부가 노래를 불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자식이 병들면 어머니도 병들고 자식이 서러우면 어머니는 더 서럽다는 구절이 무엇보다 세상 어머니들의 심정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사십이 되어도, 칠십이 넘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똑같죠?"

"평생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그리움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어머니는 철인이셨고 만능이었어요. 훌륭한 의사이시기도 했죠. 앉아서 참선 한 번 안 해보셨는데도 세상 이치를 다 아신 것처럼 말씀하고 생활하셨어요.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신 구도자였죠. 고생만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공양 한 번 지어드리지 못했어요. 병구완 한 번,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한없는 은혜만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살이를 비추어보면 내 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조금 더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부모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게 중요하죠."

"스님께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를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한 스님의 교육철학이 궁금했다. 그들이 자라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은가.

"불교 자체가 인성을 위한 기본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천 윤리가 오계(五戒)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 자체의 위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면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피땀과 노력 없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이것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적질과 마찬가지죠. 다음은 사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올바른 이성 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생명의 존중함을 알면 이는 저절로 실천됩니다. 다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제하는 것도 자신을 극복하는 큰 덕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좋은 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존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 내가 위대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죠. 그럴 때 배려가 생기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각계각층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갑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요."

아이들에게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인이었고 훌륭한 의사였다는 스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스님을 만나고 온 다음날 스님에게서 유튜브 2개가 도착했다. 스님이 작사한 '큰사랑' 과 '효' . 그리고 다음 구절.

"나에 있어서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의 아바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어머니다."

〈작가〉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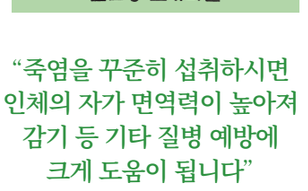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